

진실된 그 모습 그대로

[나누는 몇 마디 (6)]

제임스 김 나눔

자각해야 할텐데 ...

우리는 삶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자기 기만에 빠져있기에 ...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깊이 자기 기만에 빠져있다는 증거이다.

(Edward T. Welch, "ADDICTIONS - A Banquet in the Grave"를 읽으면서)

자기 논리에 도취?

균형있는 성경적인 논리 보다
그 성경에 대한
치우친 논리에 도취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기 부인

자기 의가 아닌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기 부인과 예수님 부인과의 관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기-의”(Self-righteousness)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추구하는
나의 본능적인 "이기심"(selfishness)을
오늘도 끊임없이 나 자신을 자랑(self-glory)하게 만들어
'자아-숭배'(self-idolatry)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자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들
(눅 16:14-15,18),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들,
주님은 우리들의 전적인 어리석음을 드러내십니다.

(D. A. 카슨,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를 읽으면서)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하는데 ... 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줄자로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우리 자신이 그 줄자에 걸리는 줄은 모르고 있는 듯 하다.

자꾸만 생각

힘든 상황을 자꾸만 생각하지 말고
그 힘든 상황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자녀 앞에 놓인 장애물보다 내 안에 있는 장애물을 ...

우리 부모가 보기에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장애물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을
치우려고 하기 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우리 자녀의 삶 속에 주신(또는 허락하신)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주시는게 훨씬 더 낫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
그 장애물을 직시하는 용기를 주시려고 하시든지,
그 장애로 인해 낙심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다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시켜 주시사 살아있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며
또한 어떻게 장애물을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사 지혜를 주시고자 하시든지,
그 장애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뜻을 점진적으로 깨닫게 하시사 그 주님의 뜻의 성취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자 하시든지, 등등...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 앞에 놓여 있어 보이는 장애물을 없애려고 하기보다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는게 급선무입니다.

자녀 앞에서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부가 서로 다툼(혹은 싸움) 때
자기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하여 죄책감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될 수 있는대로
자녀 앞에서는 다투거나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 배우자에게 화가 난다 할지라도
자녀 앞에서 함부러 남편/아내에게 언성을 높여서는 아니됩니다.
그 순간을 참고 또 참아서
부부가 따로 조용한 장소에서 차분하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힘든 현실 속에서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하기가 참 힘든 이 현실 속에서
우리 부모들은 믿음에 견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받치면서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자녀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너무 착해서 ...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 착해서
인간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아빠로서는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를 죽이고 있는 부모의 욕심

부모의 욕심이
자녀를 죽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배반을 당하는 느낌?

자녀 하나만 바라보고
그 자녀에게 모든 사랑을 주다가
그 자녀에게 배반을 당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큰 충격과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로 부터
자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자녀의 부부 관계에 고통을 주는 부모?

자식에게 폐를 끼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자녀의 부부 관계에 징검다리가 될지언정
장애물이 되어 자녀의 부부 관계에 고통을 주는
부모가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녀의 삶에 덜 개입하는게 ...?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을 하기 보다
덜 개입하는게 자녀에게 나을 수도 ...

자동차 엔진과 트랜스미션

제 자동차 엔진에 이렇게 큰 구멍이 나서 친구가 고쳐주었습니다.
약 2년 전에는 트랜스미션이 망가졌었는데 이번에는 엔진이 ...
두 번 다 차가 그냥 서버려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고속도로에서, 다른 한번은 아버님이 도로에서 ...

신앙 생활도 제일 중요한 말씀과 기도가 '망가지면'
우리는 멈춰서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

자신감(confidence)이
나 자신에게 근거한 것이라면
교만함 가운데서
나 자신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주님께 근거한 것이라면
겸손한 가운데서
주님 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Mark D. Futato 교수님의 "The Book of Psalms" 주석을 읽으면서)

자신의 역할의 위치를 알아야?

자기의 역할에 맞는 위치를 벗어나서 내는 열심은
오히려 팀 전체의 조합을 깨트리므로
다른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사랑, 큰 위로?

어떤 사람에게든
우리의 작은 사랑의 섬김이
큰 위로와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희생하자.

내(우리)가 좀 불편하고
다른 이(들)이 좀 편해질 수가 있다면,
내(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다른 이(들)에게 좀 이익이 된다면,
내(우리)가 좀 희생해서라도
다른 이(들)에게 좀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리하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고자,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작은 진보에 감사

하루 하루
조금씩 조금씩
작은 진보에 그저 감사하며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자.

작정 기도, 작심 기도응답

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작정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심하시고 속히 기도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 하지 맙시다. 바가지 굶지 맙시다.

남편으로 하여금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던지
화를 내면서 바가지를 굶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특히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치 않은 불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면 나의 잔소리나 화를 내면서 바가지를 굶는 것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 남편으로 하여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창 16:1-8).

잘 끝내고 싶습니다.

목회 시작보다
목회 은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 은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을 잘 끝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은퇴 할 때나 은퇴 후
후배 목사님들에게까지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잘 보이는 것을 너무 믿지 말자.

내 눈으로 잘 보이는 것을 믿기 보다
잘 보이지 않는, 아니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 설득당하기 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설복당하자.

잘 헤어져야 하는데 ...

만날 때도 잘 만나야겠지만
헤어질 때에는 더욱더 잘 헤어져야 하는 듯 ...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잘 지켜져야 할텐데 ...

잘 몰라서 잘못된 것도 잘못된 것이기에
겸손히 사과하되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지적이나 비난을 받으면
정직하고 담대하게 할말을 해야 할텐데 ...

그러나 나 자신보다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아니 될텐데 ...

잠시 서로에게 거리를 둘 필요가?

잠시 서로에게 거리를 두고 각자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각자만의 시간에는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 각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관계의 문제점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결심과 헌신의 시간이 되어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고 있지 않으면
서로의 관계에는 항상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장로가 문제?

장로 교회는 장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님과 치리하는 장로인 장로님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시면 좋으려만 ...

장모님과 처남 부부를 떠나보낸 후 ...

조금 전 아내와 함께

장모님과 처남 부부를 공항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장인 어르신의 하관예배를 위하여 지난 주 목요일 오셨다가

오늘 주일 저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후

이젠 다시 집으로 가시려고 공항에 가셨습니다.

지금 저녁 7시 43분, 45분이면 비행기가 떠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인 어르신의 하관예배 및 모든 것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사랑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애물이 아닌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전인 간섭 가운데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에 통로가 되어야

장애물이 되서는 아니됩니다.

장인 어르신에게 죄송합니다.

장인 어르신의 죽음을 통해

장인 어르신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장인 어르신을 사용하시사 사랑을 받으신 주위에 여러 분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 장인 어르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에서야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장인 어르신에게 죄송합니다. ㅠㅠ

장인 어르신의 옷들

장인 어르신의 옷들이 나에게 맞아서(장인 어르신의 구두까지 내 발에 맞춤)

사랑이 많으신 장모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남편의 옷들을 기쁜 마음으로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짐 가방에 쌓아 놓은 장인 어르신의 옷들을 집에 잘 놓아두고

빈 가방을 들고 세 자녀들을 데리고 장인 어르신의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목요일에 여기로 다시 오려고 합니다. 하하

재림과 사명

재림 소망

사명 감당

재물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

우리는 재물의 손해를 통해서라도 영적인 재산을 되찾아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탐나는 편리한 길?

궁핍한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탐나는 편리한 길을 선택하기 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재확인하며 재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묵상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재확신하게 됩니다.

저에게 실망을 했을 때 ...

사랑하고 기대하든 저에게 실망을 했을 때
여러분은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소망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어진 귀한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사람을 더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신음 소리를 더 듣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영혼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항하면 할 수록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하되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 고집을 꺾지않고 내 뜻대로 행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록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복종케 하시고자
더 강력하게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 인생의 파도로 인하여 자아가 깨지고 고집이 꺾어지며 내 자신의 한계를 좀 뼈저리게 느낄 때에
그 때가 되어서야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요나 선지자와 야곱을 생각하면서)

적절한 타이밍

그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야 하는데 ...
스피드 조절이 필요하다.

"전생애가 고난의 일생"

예수님의 "전생애가 고난의 일생이었다.
그것은 만군의 주의 종된 생활이었고,
무죄하신 이가 날마다 죄인들과 어울려야 했던 삶이며,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영위해야 했던 삶이었다.
그로서는 순종의 길이 곧 고난의 길이었다."

(벌코프, "조직신학")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무 것도 아닌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새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수동적인 모드에서 능동적인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절벽 끝에 서 있더라도

절벽 끝에 서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심지어 절벽에서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자포 자기 하지 마세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사랑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절제된 사랑

풍족히 주는 사랑보다
줄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주지 않는
절제된 사랑이 더 힘든 듯 합니다.

절제력을 상실한 욕심 많은 목회자

절제력을 상실한 욕심 많은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재정적이고 환경적인 풍요로움은
그 영혼을 망치는 것이요,
무너짐의 지름길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절제하여 거절을

지금부터도
작은 유혹에
절제하여 거절을 못하고 있다면
결코 나는 앞으로 있을
큰 유혹도 절제하여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젊은 사역자들

하나님이여 헌신된 젊은 사역자들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정도

정도를 걷기 위해선 마음이 정직해야 한다...

정이 많다는 것?

정이 많다는 것,
좋으면도 있지만
않좋으면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나는 정이 좀 부족해도
이성적인 사람이 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정체성의 전쟁?

정체성의 전쟁(A war of identity)?

지금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하고 있고, 맞바꾸고 있으며(롬 1:26-27)
또한 혼란을 주어 우리로 하여금 혼동케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의 우리 정체성을 공격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께 순종하며 살지 못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형제답게 예수님의 삶을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재현해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성령님을 거스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는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정체성 공격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정치적이 아니라 정직하게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섬기지 않고
정치적으로 뻘뻘하게 일하고 있으니 ... ㅠ

제자? 이중인격자?

지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산하기보다
이중인격자들을 생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급하면 실수를

조급하면 실수를 범하기가 쉽다.
실수를 범한 후
다시는 조급하지 말고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

조급함

"조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앞지르게 하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계획과 방법들을 만들어내어
끔찍한 결과를 내게 만듭니다.

조직력보다 생동력을 추구해야 ...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의
기계처럼 하는 종교 생활에는
짜임새와 조직력은 있어보여도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상실하여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과 공동체의 교제를
결코 할 수가 없다.

존경 받는 장로님

욕 먹는 목사님 보다
존경 받는 장로님이 훨씬 낫습니다.

존재의 목적

나는 사랑하기에 존재한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요 행복이다.

[김형석, "백년을 살아보니"를 읽으면서]

졸업장(diploma)을 죽음 자격증(death certificate)으로 여겼다?

세상에서는

살고자

스펙을 쌓아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려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죽고자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갈보리 산으로 향한다.

(1550년 즈음 종교개혁이 일어난 프랑스에 The Genevan Academy의 졸업생들이 졸업장(diploma)을 죽음 자격증(death certificate)으로 여겼다는 글을 W. Robert Godfrey 교수님의 "REFORMATION SKETCHES"란 책에서 읽은 후)

좀 느려도

거복이처럼 좀 느려도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면 된다.

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좀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충격을 받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분노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좀 걸려 넘어져야 합니다.

걸려 넘어져서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봐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양심에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 양심에 찔림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vs. 신앙생활

1. 사람들 앞에서의 종교 생활 7 가지:

- a.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 b. 사람들에게 높임(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 c. 사람들을 두려워 한다.
- d. 하나님 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 e.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을 뜻을 이루려고 한다.
- f. 사람들과 비교한다.
- g.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민감한다.

2.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생활 7 가지:

- a.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 b. 하나님을 경외한다.
- c. 하나님께 순종한다.
- d.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 e.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 f. 하나님의 칭찬을 사모한다.
- g. 자기가 무익한 종인 줄 안다.

좋아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룬 신혼 부부를 보니
좋아보이고 행복해 보이며 또한 마음이 평안해 보입니다.

좋은 기회인 위기?

위기는
사랑을 깊고 크게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사람과 함께
주님 안에서 마음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신의 축복입니다.

좋은 추억 만들기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
주님이 주신 만남 속에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헤어져서라도 그 좋은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추억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추억은 좋은 추억입니다.

죄 짓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짓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상실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

"전에 우리는 그 죄의 영역에 속해 있었고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육체의 마음의 원하는 것들로 그 자체를 드러내는 육체의 욕심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에 의해서 조정을 받고 있었고 지배를 받고 있었고

마음과 몸 속에 있는 이 정욕들과 욕심에 의해서 여러 방식으로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죄의 체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빠져 나왔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라'고 바울은 로마서 6 장에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영적 화해")

죄가 익숙하다

내 몸은 죄짓는 것이 편하다.

내 육신은 죄짓는 것이 익숙하다.

죄를 어떻게?

죄를 덮고자 하는 것보다

죄와 씨름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죄악의 풍랑 가운데서 누리는 평강

죄악의 파도와 풍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배의 선장이신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길 기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신앙이 퇴보해 있다는 증거다.

죄에 중독된 상태?

반복되는 내 최악된 선택의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만큼 나는
그 죄에 깊이 빠져
그 죄에 중독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Edward T. Welch, "ADDICTIONS – A Banquet in the Grave"를 읽으면서)

죄와 은혜

죄의 깊이를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책감보다 회한을 해야 ...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죄책감(guilt)를 가지기 보다 회한(remorse)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즉, 죄를 범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

죄를 범하므로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는 사랑

자녀에게 주는 사랑보다

자녀를 주는 사랑(Giving Love)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받치는 사랑(Offering Love)과

이웃에게 보내는 사랑(Sending Love).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에(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정이란 ...?

주님 안에서 우정이란
믿음으로 순종함과 모험과 힘듦과
어려움과 오래참음(인내)와 고난(역경)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주님 안에서 함께함이 ...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함이
감사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주님 안에서의 교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웃으며
한 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역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만남은
반갑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함께 부족하나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만남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저는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오늘 영어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한 찬양곡 가사의 한 부분이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었다:
'Lord, I want to walk on the water'
(주님, 저는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마치 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바라보기 보다
내 인생의 바람이나 풍랑 등
내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므로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물에 깊이 빠지고 있다할지라
나는 다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근심 걱정을 미약하게 해주세요.'

새벽기도회 때 받은 귀한 은혜를
하루를 지내면서 이런 저런 많은 생각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나 자신의 미약함을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근심 걱정을 미약하게 하시사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주님 중심된 가정은 ...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control)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권위(authority) 아래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므로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주님 중심된 가정은 가정 천국화를 이뤄줍니다.

주님께 순종하면서 욕을 먹으면 ...

주님께 불순종하면서 욕을 먹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순종하면서 욕을 먹으면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됩니다. 주위 사람을 보면 실망이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절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손길,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 내 영혼이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주님의 경고를 겸손히 받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

나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는 생각 속에서
한탄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탄 속에서 감사하자.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사는 삶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그들의 기대에 미치는 삶을 살기보다
나를 사랑의 눈으로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따라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보람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충분히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용하되 주님께 사용받는 즐거움을 더욱더 충만히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흐트러 놓는 가까운 사람들의 많은 소리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도 할 수 있지만
심지가 견고한 자라면
흐트러짐과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부르심에 묵묵히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다.
사랑하지 않는 죄를 회개하며,
사랑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헌신할 수 밖에 없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게 될 때에 ...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조금이나마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추악함을 미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일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처럼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
그 과정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고,
다툼과 서로 상처를 입히며
그 일을 한다면,
그리고 심지어 그 일을 우리 보기에 성공적으로 마치기까지 했다면
과연 그 일이 주님 보시기에도 주님의 일 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만남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새로운 만남은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

오래 전 저는 잘 달리는 말에 왜 채찍질을 하시냐고 아버님에게 물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님께 잘 달리는 말을 쓰다듬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쭙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잘 달리는 말을 쓰다듬어 줘야 하는데 나는 지금 채찍질하고 있으니...

혹시 나는 지금 잘 달리지도 못하는 말을 채찍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은 부지런히 채찍질해도 잘 달리는 말이던 잘 못달리는 말이든 쓰다듬어 줘야 하지 않는가 ...?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 다시 오지 않을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용서할 수 있는 기회,
화해할 수 있는 기회 등등을 놓치지 마십시오.

주제 파악을 잘하자!

주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꾸준히 하므로
주제 넘는 생각 속에서
주제 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죽고자 태어났고, 죽고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자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을 위해 살아야 하며
또한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에는 일관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난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 못해'가
'난 죽기 전에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해'로
바뀌는 은혜가 있길 ...

죽어서라도 ...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의 목소리

산 자의 목소리보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이리도 더 클 수가 있구나.

죽은 후에 나에게 대한 기억?

과연 내가 죽은 후
내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은
나에 대해 무슨 기억들을 하고 있을까?
혹시 그 기억들 중
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
일관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지금 나는 무슨 기억을
그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일까?

죽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사랑하는 장인 어르신은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씨에라비스타(Sierra Vista, Arizona)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

죽음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 하루 그 분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그 분들을 대할 때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준비, 대비, 방지

준비하고

대비하며

방지해야 ...

준비를 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하듯이

성도님들은 설교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이 섬겨야 ...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즐거이 섬겨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내가 필요없다?

지금 내가 절실히 필요한 것,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내가 그것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내게 그것이 필요가 없는데

나는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내 욕심일 수도...

그 욕심을 채우고자 내가 필요한 것을 추구하므로 얻었을 때

내가 풍부해졌다는 느낌은 들 수 있겠지만

그 풍부함은 오히려 나의 믿음을 가난하게 할 수도 ...

지금 여러가지 일들이 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지만 ...

지금 여러가지 일들이 좀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 하나 일들을
어떻게 협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려고 하시는지 흥미롭다.

비록 나는 지금 퍼즐 하나 하나씩 밖에 못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퍼즐들을 이미 다 맞춰놓으셨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씩 맞춰가실지 기대가 된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검이요 방망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찢림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종들에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
사 40:10, “부드러운 말”(pleasant things)]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는 우리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부드러운 말들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바른 길을 버리고
거짓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허망(deceit)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스트모던(Postmodern) 시대는 이성보다 감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감정적이며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에 지배되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한 마디로,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감성주의입니다.

저는 이 감성주의의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크게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 합리적이며 논리적인 우리의 이성에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감정이 견고한 성품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Fact)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Faith)안에서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그저 감정(Feeling)에만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바른 교훈(sound doctrine)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

불안정한 느낌(unsound emotion)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되어 변화를 받아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기보다

우리의 마음은 우왕좌왕하면서 변질될 위험이 많습니다.

어떻게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리고 혼합주의에 빠져

신앙의 정도를 걸지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변질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친 관심

신중하지 못한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해가 될 수도 ...

지나친 궁금증

상대방에 대하여 궁금증이 너무 많아도
그 사람에게 폐가 될 수 있겠네요.

지나친 사랑, 지나친 열심?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지나친 열심은
절제되지 못한 감정으로
교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감정인 섞인 말로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열정은 ...

지나친 열정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잘못만을 보게 하므로
그 상대방에게 함부러 이래라 저래라 하게 만듭니다.

지난 15년을 뒤돌아 보면서 ...

서현교회와 한국을 떠난지 15년이 되었네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3년 11월 말로 서현교회를 사임하고

12월 3일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12월 21일에 승리장로교회 담임목사로 위임된 기억이 생생합니다.

오늘 새벽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지난 15년을 뒤돌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친 이웃 사랑

마음에 시험이 들 정도로 이웃을 열심히 사랑하는 것,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잠 16:10).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상황에 이끌려서

흐려진 판단력 속에서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매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 영적 분별력 속에서 옳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지도자는 ...

지도자는 따라오는 자에게 위임(delegation)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위임을 하되 지도자는 위임한 일의 결과를 기대하기보다

따라오는 자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지도자는 따라오는 자를 신뢰하고 있음을

그/녀에게 확증시켜 줘야 합니다.

지도자에 대한 2 가지 교훈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하여 생각하게 된 점들:

1. 내게 주어진 권한을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 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예: 사도 바울).
2. 무슨 말을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어떻게 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현실화되는 과정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지식 없는 열심

지식을 무시하고 감정에만 치우치는 신앙생활은 위험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성경을 객관적이기보다 주관적이고 체념적으로 읽고 해석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게을리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식없는 열심은 좋지 못합니다(잠 19:2).

지혜로와 질 수록

지혜로와 질 수록

현실을 더 분명히 보고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신학교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교인

지혜로운 교인은 교회에 가서 ...

겸손히 듣습니다.

잠잠히 기다립니다.

자신을 뒤돌아 봅니다.

(ZACK ESWINE, "THE GOSPEL ACCORDING TO ECCLESIASTES: RECOVERING EDEN"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머리로 비판하는 것은
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여 건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려주므로 함께 기도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분 나빠하든지,
지혜롭게 선택해야 ...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텐데 ...

돈 보다 사람을 택해야 하는데
사람 보다 돈을 택하고 있으니 ... ㅠㅠ

지혜로운 아내는 ...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며 격려하므로
남편의 그 장점을 더욱더 세워줍니다.

지혜롭지 않은 처사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상대방을 잘 아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Murray Capill, "The HEART IS THE TARGET" 이란 책을 읽으면서)

직시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시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진리보다 상황에 이끌림을 받는 사랑하기

선한 목적 가지고 주님의 일을 추진하는 형제가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그에게 관대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행함을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그 형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진리 안에서의 사랑일 텐데
우리는 진리의 이끌림을 받는 사랑하기보다
상황에 이끌림을 받는 사랑하기에 더 익숙하고,
더 감동을 받으며 그리고 더 감사해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그릇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서는 다 알고 계실텐데 ...

진실된 그 모습 그대로 ...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진실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 진실되이 나아가듯이
서로에게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서로의 진실된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품으며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실된 사랑의 눈물

오늘도 눈가에 눈물을 엿보았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 눈물은 진실된 사랑의 눈물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눈물 중
끊이지 않는 간절한 기도의 눈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며 희망을 갖습니다.

진실된 사랑의 마음은 통합니다.

진실된 사랑의 마음은 통하네요,
비록 그 마음의 사랑 표현이
서툴고, 부족하지만서두요 ...
감사.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 ...

나보다 힘(권력)이 썩 사람 앞에서도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텐데 ...

진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은 진실하신 언약의 하나님,
나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날 그 때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양심에 찔림 속에서 괴로워 해야 하는데 ...

진실한 사랑

빠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빠들어진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들어진 입을 가진 사람은 빠들어진 말인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마음과 바른 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바른 입으로 바른 말인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실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젠 우리는 더 이상 포장된 마음과 꿀과 같은 입술로 사람을 대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젠 우리는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주위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에 굶주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인품

인품이 중요합니다.

진실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인품의 소유자를 친구로 둘 수만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 하겠죠?

진실해야 하는데 ...

우리 목사님들은 진실해야 하는데

거짓말을 그리도 습관적으로 하고 있으니 ... ㅠㅠ

진심, 진실된 표현

진심을 진실되게 표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 ㅠㅠ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마음 속으로 사랑하도록 힘쓰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진정 기도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일까?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만 할 수 밖에 없다는 내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할 내 책임을
등한히 하게 만들어서는 아니 될텐데 ...

진정 순종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므로
우리의 명철로 이해가 안될찌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것이다.

진정 우리는 사랑할 시간 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배우 고 김주혁 씨(45 살)의 사망 소식과 더불어 그의 연인인 이유영 씨의 충격을 받았다는 뉴스 기사를 읽으면서 몇 가지 드는 생각을 나눕니다.

첫째로, 고 김주혁 씨가 나온 드라마를 본 기억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익숙한 배우인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좀 놀랐습니다.

둘째로, 고 김주혁 씨의 나이가 45 살인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떠났다는게 안타까우면서 참으로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저 오늘 하루 주어진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셋째로, 뉴스 기사를 보니 어쩌면 고 김주혁 씨의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이란 글을 보고 심근경색에 대해 좀 인터넷을 뒤져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는 저보다 젊은 목사님도 심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의 경우는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랬다고 들었는데

저는 고 김주혁 씨의 사망 소식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혹시 그도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심근경색"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한국에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모르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넷째로, 연인을 먼저 떠나보낸 이유영 씨, 27 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그녀의 심정은 지금 어떨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종종 저의 죽음을 생각할 때 제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

또는 반대로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떠나면 제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와 아내를 같이 천국으로 불러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연인/배우자/자녀/부모님 등등

그/녀의 존재 자체에 감사하십시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고 헤어짐은 잠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 우리는 사랑할 시간 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외로운 자는 ...

진정으로 외로운 자는 생명을 걸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없는 사람이다...

진정한 겸손이란 ...

진정한 겸손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나 자신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여기는

건강한 지아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천하게 여기고 소외시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묵묵히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John Dickson 의 "HUMILITAS"을 읽으면서)

진정한 교제?

주님 안에서 진정한 교제의 파워(power)는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purpose)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중계명의 원리(principle)에 순종하여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패턴(pattern)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교회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괜찮아. 앞으로 잘될꺼야'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는 진리를 믿고

참된 회개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리길 때만이

고통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진짜 부끄러운 일이란

나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포장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비정상인가요?

이젠 교회 안에서도

정상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병보다 죄짓는 것 ...

질병에 걸리는 것보다 죄짓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더 두려워해야 하는데 ...)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 식구를
수년 동안 돌보며 간호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최선을 다하신 담당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산소 호흡기를 떼시겠습니까?'
어떻게 의식이 있고 눈을 뜨고 쳐다 보는데
산소 호흡기를 떼야 하는지 ... ㅠㅠ
이렇게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야 하는지 ... ㅠㅠ

사랑하는 분을 떠나 보낸다는 것,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도 이 도전을 감수해야 하기에 ...
그 날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
사랑하는 분과 주어진 하루 하루, 순간 순간 시간을
주님 안에서 마음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가면서
소망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질병의 치유보다 ...

질병의 치유보다 죄 사함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질투심

질투하는 마음은
빼놓어진 마음입니다.
빼놓어진 마음에서는
빼놓어진 생각과
빼놓어진 말이 나올수 밖에 없습니다.

질투의 눈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눈은 살인적인 질투의 눈이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사랑의 질투의 눈이다.

집중

세상 것들에 집중하다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집중하다보면
하나님이 보고계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

집중력이 너무 좋아도?

집중력이 너무 좋다보면
주위를 잘 보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피해를 보기가 쉽다.

(왜 유리 문에 얼굴을 부딪혀 바늘을 꿰뚫 정도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때
아내의 말에 동의하면서)

짧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짧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오늘 헤어지면 또 언제 만나려나,
주님의 뜻이 계시면.

만남의 즐거움과 헤어짐의 추억,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위하여!

짧은 인생인데 ...

사랑만 해도 시간이 모자르는 짧은 인생인데 ...

짧은 인생입니다.

말다툼하고 반항하고

불평 원망하며 살기에는 너무 짧은 인생입니다.

화목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통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짬뽕 신앙”?

요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목사님, 저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의 신학 배경이 장로교이던(합동이던 통합이던), 침례교인던, 오순절 계통이던 등등 상관 없이 내가 듣기에 좋은(은혜가 되는?)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말씀에 굶주린 모습은 보기 좋지만 다른 한쪽으로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그 염려란 내가 좋아하는 다양한 목사님들의 다양한 설교를 들으면 '짬뽕 신앙'이 될 위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짬뽕 신앙"이란 마치 무지개처럼 이 색깔, 저 색깔이 섞여 있는 신앙으로서 신앙의 일맥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신앙의 일맥과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견고하지 못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견고한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선 성기고 있는 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바른 교훈"(sound doctrine)을 듣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바른 교훈을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참고로 듣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같은 개혁신학을 공부했다는 우리 같은 장로교 교단 목사님들도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의 목사님들처럼 설교를 하고 있으니 할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님의 입장에선 오죽 하겠습니까.

혼돈의 시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쫓기는 생활 보다

쫓기는 생활 보다

쫓아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차별 대우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특별한 존재인 줄 착각하여

사람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존재임을 느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자.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으므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

그 고통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로 착각해서는 아닐 것이다.

참 다르네요

돈만 벌고자 어느 정도 눈가림만하면서 대충 일하는 것하고

자신의 일에 실력과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즐기면서 일하는 것하고 참 다르네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매를 맞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
참 두려운 일이다.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가르침(교훈)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말이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 참는 성도님들 ...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가 교인들을 향하여
참고 또 참는다고만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을 향하여 참고 또 참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된 스승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스승이야 말로 참된 스승이다.
그 참된 스승의 가르침이야 말로 우리 심비에 깊이 새겨져
평생 잊지 못할 교훈으로 남을 것이다.

참된 위로?

어떻게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참된 위로는 있을 수 있습니까?

참된 자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범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책임 전가 보다 나은 것?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세보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더 나은 듯 ...

책임 전가보다 나은 것?

책임을 전가하려는 자세보다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더 나은 듯 ...

천박해진 기독교

기독교의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천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초자연적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통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가족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천사와 같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첫 사랑, 초심으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던 그 순간을 잊지 말자.
첫 사랑!

주님 앞에서 흘렸던
회개와 눈물과 감사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을
다시금 흘리자.
초심으로!

첫째 아기의 죽음으로 ...

'첫째 아기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구나.'
(조금 전 새벽기도회 때 기도하면서 약 22년만에 처음 든 생각)
그 아기의 한국어 이름("주영) 뜻대로
나는 그녀의 죽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 아기의 영어 이름("Charis") 뜻대로
나는 그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

청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청년들을 생각하며 흥분이 되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합니다.

초라한 내 모습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나 자신을 보니
참으로 초라해 보입니다.

최악의 상황?

어쩌면 우리의 삶에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려는 것이라고 보다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시사 고통을 통하여
겸손히 인정케 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교정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추론에 근거한 판단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내 개인적인 추론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러 판단하는 것을 삼가해야겠다.

추억 만들기

인생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나쁜(잘못된, 어두운) 추억들을 지우기.

추억?

금년 한 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겨주신 추억은 무엇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추억은 무엇일까 ...?

추측하는 것

추측하는 것은

남녀의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대화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한 여자들?

교회 안에서 여자들끼리의 질투,

다윗을 질투한 사울 왕처럼 살인적인 것 같다.

자매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매 살인죄.

축구를 보면서 느낀점

영국 축구(EPL)를 보다보면

수비수가 공격도 잘하는 모습을 본다.

실제로 축구를 하면서 배우는 점은

수비를 잘 보는 사람이 공격도 잘하는 경우를 보는데

공격수인 나는 수비를 잘 못본다.

이 배운점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았다.

영적 전쟁에서 믿음의 방패로 수비를 잘 보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과 죄악된 본능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같다.

그런데 수비를 잘 못보면서 공격만 열심히 하려는 그리스도인은

균형을 잃어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

축복 설교 vs. 회개 설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축복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정도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들병들어 있는 영혼은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받는 고난은 축복이지만
성도님들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누리는 안락함은 저주이다.

축복된 삶

소소한 일상 생활 속에서
사소한 일도 관찰하고 생각하면서
그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배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된 삶이라 생각합니다.

축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축적되어 가고 있는 중 ...

꾸준히 즐겨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축적되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실력을 마음껏
(절제된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한 그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 적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며 왜곡하므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잠 26:9).
그런데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입을 열어 왜곡된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므로 그들에게도 신앙생활의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민간함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영적 민간함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미련한 자의 잠언과 지혜로운 자의 잠언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녀야 합니다(13:20,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 질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잠 9:9).

치유함과 용서함

치유함을 받기보다 용서함을 받아야?

친구란 ...

친구란 관계이지 기능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거래가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친구의 관계에는 일상성과 평범함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일상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친구는 그저 상대와 함께 있는 줄아서 찾아갑니다.

무엇을 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관계에는 우정과 고마움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과 존경의 표현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물총새에 불이 붙듯")

친구의 사랑

마음과 마음이 묶인(결탁된)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사랑하는 친구를 기뻐하며(delight),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며,

친구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싶어하는 친구의 사랑....

요나단처럼 친구를 위해서 슬퍼하는 사랑...

이런 친구 사랑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친밀한 관계

친밀함을 추구하는 관계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물총새에 불이 붙듯"을 읽으면서)

친정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오늘 처음으로 시어머님은 모시고 살 수 있지만
친정 어머니랑 함께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저로 하여금 생각해 만들고 있습니다.

침묵을 존중해야 합니다.

관심 있는 상대방의 침묵이
나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어
상상의 날개를 피게 한다면
나는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추측으로 그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을 위험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침묵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를 이해하려는 마음 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칭찬보다 면책을 ...

마음에도 없는 한 마디의 칭찬보다
사랑으로 말하는 한 마디의 면책을 더 사모하고 싶습니다.

칭찬보다 존경 받는

주위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것은 쉬운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존경 받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칭찬보다 책망을 사랑하자.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지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
마음이 겸손해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